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임시 제직회가 오후 2시에 모이고, 이어서 공동의회가 모입니다. 안건은 정재훈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며, 교육관에서 비대면과 병행하여 모입니다. 오늘 회의는 임시 당회장 조인서 목사님(수유제일교회)께서 진행하십니다.
- 공동체학교 하반기 전체 학부모교육이 오후 4시에 교육관에서 비대면과 병행하여 모입니다. 오늘 강사는 이정태(졸업생 부모) 윤민정(졸업생) 두 분입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와 교회운영위원회 연합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36 호

2021년 9월 1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커다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과 2년만에 온 지구에 널리 퍼졌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받았고, 여기저기로 불같이 퍼지는 기세는 지금까지도 맹렬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피해와 혼란을 불러온 이 바이러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인 것만이 아닌 다채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흔히 선진국으로 불렸던 나라들에서 마스크조차 거부하는 광경이 나타났고, 하나의 지역, 민족, 국가를 떠나서 위기 앞에서는 온 인류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도 자연스럽게 공유되었습니다. 결국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길고도 완곡하게 경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종식을 두고 기도합니다. 몇쟁이학교 학생들의 기도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을 기억하는 학생이라면 더욱 자주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휩쓸기 전에는 없었던,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울타리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음을 알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거리두기 단계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변화한 세상에 대해 적응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과 주변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에 커다란 페이지로 남을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기록될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십사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로써 기억에 남게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흔히 대화한다거나 교감한다고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모습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선 사람이 기도할 때에만 임하시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강력한 연결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때론 용기나 사랑, 희망과 기쁨, 위로와 충만함을 부여받는 것이겠지요. 그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저런 요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 코로나 19의 종식이라던가, 누군가의 아픈

선교와 섬김

이라던가, 딱딱뜨린 위기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 '헝소고지'는 의무병으로 제 2차 세계 대전에 참여하게 된 실존인물, 데스몬드 도스의 이야기입니다. 한창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중에 도스는 필사적으로 구하려 했던 전우가 사망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도스는 다른 부대원들이 후퇴하는 가운데 자신도 피투성이인 채로 전쟁터에서 조용히 독백합니다. "주님, 제게 뭘 원하시나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포탄이 떨어지는 불과 연기 속에서 의무병을 찾는 외침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스는 "좋습니다"하고 다시 한 번 그 지옥속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의 응답을 바라던 자였지만, 자신이 응답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도움을 바라는 자들에게 가면서 약 300여명의 부상병을 격전지에서 구해온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더욱 익숙한 인물로는 삭개오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세관장인데다 부자인 그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분을 기쁨으로 모셔들이며 삶의 방식을 바꾸겠노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을 따라 충성된 모습을 추구하고 격려하며, 이후에 들려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창조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딱딱뜨린 변화를 잘 살피고, 그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멋지게 활용해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
 <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79편

제목 :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87 543 366 363

1 - 4 웃음거리가 된 이스라엘

5 주님의 진노

6 - 7 이방인들에게 진노를

8 조상의 죄악

9 하나님께 도움 요청

10-12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13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관찰: 이스라엘이 이방나라들로 인하여 심판받았을 때 드리는 기도

해석: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 구성원으로서 속해있는 공동체(가정, 회사, 학교, 모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적용: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방법

- 1) 기도의 순서: 현상태 아뢰 - 용서구함 - 요청(사적, 개인적, 소의) / 자신을 돌아봄 -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하나님의 영광, 존재를 위해) - 요청(공적, 대의) -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의 고백(방법-신뢰, 구원) - 감사, 감사의 찬양
- 2) 기도의 목적: 개인, 민족, 공동체의 보복,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명성에 있어야 한다. 기도할 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기준-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흐름)에 따라 기도하자
- 3) 기도의 기다림: 성령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꼭 드리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는 그 모든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흑암뿐이요 그 백성들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반대로 빛입니다. 바로 그 나라와 그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며 그들에게 내려감을 스스로 느끼는 빛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묻는 질문에 수수께끼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몸짓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눅17:21) 하나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다. 내가 여기 너희 가운데 서 있듯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때 예수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유토피아와 같은 이 땅의 나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쾌적한 곳에 존재할 것이라는 그릇된 환상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토피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잠시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기와 더불어 예수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훑어보았을 때, 진정 유토피아와 같은 쾌적함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인간의 온갖 비참함이 군대처럼 이곳으로 모여든 곳을 보았을 뿐입니다. 모든 눈이 의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육체들이 구부러지고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본 것은 죄책에 억눌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자신의 곤고함 때문에 잊어버렸던 이웃에 대한 냉담함과 기피에서 흘러나온 침묵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비참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 내가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몸소 죄책에 억눌린 자들과 비참한 자들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 전체를 그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 버릴 힘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진정 여기에 계십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가을 눈을 보러 귀락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 멋진 흰 구름, 아직 뜨거운 가을별과 시원한 그늘을 만났습니다. 푸른 잎들 사이 노란 빛을 띠기 시작하는 벼랑 탐스러운 포도송이, 빨갭게 익어가는 고추, 여뀌와 고마리 꽃망울이랑 나비들도 만났습니다. 방학으로 비로 오랜만에 나온 산책이라 발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하다가도 이제 학교로 돌아가자 하니 더 있다가 가고 싶다고 아쉬워합니다. 벼가 누렇게 익을 때쯤 다시 보러 가기로 합니다.

앞산으로도 산책을 가려다가 운동화라기에는 미끄러워 보이는 신발들을 핑계 삼아 광릉에 다녀왔습니다. 재실 대청에 달아 올린 문도 보고 온돌방에 깔린 종이장판을 만져보았습니다. 아궁이도 들여다보고 가마솥도 만져보고 굴뚝도 보았습니다. 예쁜 꽃문양이 있는 단청을 보았습니다. 임금님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에는 임금님 집에 칠하는 단청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곳에서 다른 수종인데도 서로 얽혀 자라는 모습을 보고는 둘이 결혼한 것 같다고 합니다. 재실 옆 마당에서 도토리도 보고 나무 위의 다람쥐 놀이도 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맑은 가을날 드디어 2년만에 2학기 개강 여행을 떠났습니다. 설레임을 가득 안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떠나는 1박2일의 소풍은 어린이 맘속에 어떤 찌꺼기도 남김 없이 버리고 즐거움만 남게 해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승승 달리다가 금산휴게소 뒷마당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또 승승 달려서

배움과 가르침

장수군 장계에서 가야유적지 발굴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장면이라 더 신기했고 고고학자의 설명도 듣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말도 타고 말먹이도 주고 흥겹게 보내고 진안으로 와서 1박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이산에서, 유래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이산을 둘러보고 생태손수건도 만들고 굴렁쇠도 굴렀습니다.

서로가 다 좋고 서로가 다 예쁜 시간이었고, 또 이런 시간이 주어지길 바라며 여행이 포인트였던 한주간 어린이소식이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이번 주간은 학생회가 구성되면서, 여러 조직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주간이었습니다. 회장에 최지수(5학년), 부회장에 유희정(5), 총무로 이나영(4), 서기로 고온유(4), 회계에 박인혁(4)입니다. 그와 더불어 부서, 식사당번, 섬김이와 동아리도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마다 새롭게 맞이할 2학기의 내용들이 기대됩니다.

목요일에는 다들 고대했던 멋쟁이 풋살 불꽃리그의 첫 경기가 치뤄지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팀이 최선을 다해 운동장을 달려나가며 뜨거운 명장면도 여럿 등장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간식도 있었고요. 6학년은 이제 수시접수기간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움직이는 멋쟁이들이 대견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지리산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안정적으로 학교 활동이 이어지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돌이키는 삶”

에스겔 33:19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한 경쟁 세상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증언하고자 함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더니, 정말로 정의·평화·기쁨의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는 말씀에 관해서 성서일기라는 귀납적 성경연구가 있습니다. 공동체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인한 자기 성찰이 기초가 되어서 성숙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사람도 없고 옳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정결해져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정결해져가기 위해서는 먼저 분노를 다스리고, 미움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므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분노, 마음의 표현은 공동체를 10년, 20년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시의 감정 표출로 인한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댓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신앙적 삶 속에서 날마다 행하는 말씀묵상과 나눔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자 하는 자세는 이 세대에서 세상적 가치가 별거 아닌 것으로 증언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사는 이유를 증언하는 삶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승하므로 공동체가 영속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리라 생각해봅니다.

그러므로 성서일기와 성서모임은 중요하고 사랑방공동체를 든든이 세워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용신 장로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인 도 : 정재훈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에티오피아를 위한 기도>

에티오피아 서부 지역에서 수일간 인종갈등에 기반한 폭력사태로 최소 21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인권기구가 밝혔습니다. 이중 150명 이상의 주민이 총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학살과 분쟁이 반복되는 중에 희생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이상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도록, 복수에 기반한 살인과 폭력이 멈추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분쟁이 종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국 부르더호프를 위한 기도>

(1) 부르더호프 공동체가 한국에서 공동체 영성을 나타내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한국에 머무르는 식구들이 마음이 잘 모아지고,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어린이학교 여행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 방모임 시작,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3) 임시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위해서 (4) 전체 학부모교육을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9월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나무들도 조금씩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초에는 가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화요일에는 생활공동체 위원회 모임과 생활공동체 연합모임이 있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번 주부터 방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생활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함께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루터기 공동생활에 함께 참여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에는 숙소를 청소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방학동안 손봐야 했던 시설들을 고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 생활도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